

시론



박요섭 목사
남부교회

여름 휴가철이다. 거리마다 여행 광고가 넘쳐나고, SNS에는 휴가지 사진들이 줄을 잇는다. 그런데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묘하게 허탈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휴가 갔다 와서 더 피곤하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는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휴식을 누리고 있는가? 현대인들은 휴식을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더 멋진 곳으로 가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휴가가 또 다른 스케줄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원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기록이 나온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안식의 원리를 우리에게

심포 없는 인생, 심포 있는 신앙

보여주신 것이다.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다. 이는 단순히 일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혼의 참된 쉼을 누리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부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그 분과의 동행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참된 휴식의 조건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휴식을 누릴 수 있을까?

첫째, 멈춤의 용기가 필요하다. 진정한 휴식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멈추는 데서 시작된다. 스마트폰도, 할 일 목록도, 심지어 생각까지도 잠시 멈추는 것이다.

둘째, 자연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치유된다. 바닷가의 파도 소리, 산속의 맑은 공기가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준다.

셋째,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떠들썩한 놀이보다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

일상 속 안식의 실천

휴가철만 되어서야 휴식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안식의 원리를 실천해야 한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정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묵상하거나,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주일을 진정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다. 단순히 교회에 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혼의 충전을 하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

바쁜 일상 중에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연습이 필요하다. 신호등에서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런 작은 틈새 시간도 기도와 묵상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영혼이 쉬는 진정한 휴식

참된 휴식은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영혼의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영원하다.

이런 휴가철을 맞아 더 많은 곳을 다니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찾아보자.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이 쉬는 참된 휴식,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社說

국민통합과 민생(民生)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화합을 이룰 때요, 사회적으로 합심단결 할 때이다. 국운이 융성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며,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려는 때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이때를 잘 살리면 발전하고 부강해지지만, 이 기회를 잘못 활용하여 단합과 단결을 이루지 못하면, 역사 속에 점점 퇴보하기 마련이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각 정당마다 주장하는 이념과 추구하는 목표가 있기에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의 다른 주장이나 견해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기에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해 가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불모로 잡고, 자기들의 주장만 고집하는 형국이다. 협력이나 협치가 아니라,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어떻게 하면 지금의 형국을 헤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더 좋은 부흥과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겠는가? 무엇으로 분열되어가는 국론을 하나로 묶어서 국가발전과 백년대계의 선진대국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겠는가?

첫째, 우리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물론 각 정당마다, 지역마다, 특정한 형편과 입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와 앞으로 치루게 될 선거문제 등 복잡한 현실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단합과 협력이 있을 때에 부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다. 아무리 좋은 때라고 하여도 지혜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큰 부흥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라도 협력하고 힘을 모으면 놀라운 성장과 변화를 이루

게 된다. 이제 각계각층의 고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 방법은 어떨까? 대국적 차원에서 통합의 지혜를 모아야 하리라.

둘째,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과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지금은 온 국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해야 한다. 기독교 신자들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할 때이다. 333. 어느 때인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겠는가? 지금은 국가의 흥망이 달린 중요한 때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감사하며,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일을 위하여는 지금처럼 중요한 기회가 없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요, 지금이야말로 온 국민이 하나되어 부강한 대한민국을 세우도록 힘을 쏟아부을 때이다. 그러므로 온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간구하여야 한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국민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 민족에게는 남다른 해오. 의미가 부여된 때이다.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대화합과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이다. 인콰으로 많은 문제와 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롭게 대처하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기회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여야 위정자들, 그리고 새정부(政府)는 민생복지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국제관계에서 이 시대의 난국을 극복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 국민은 위정자들과 모든 이들의 평안과 국민대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03년 9월 17일 창간 /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홍사진 사장 김충현 편집인 권순달 후원회장 박근주 인쇄인 배성한
(주)성경신문사 03026 서울특별시 송로구 인왕산로 17가길 11(행촌동 1-29 총회회관)
대표전화 070-7132-0091~5 홈페이지 www.sknews.org
광고신청안내 070-7132-0091 독자기고·제보 sknews12@daum.net

- 구독료 : 1개월 4,400원 / 1년 44,000원(VAT 포함)
- 후원·입금계좌 : 국민은행 533301-01-16871 4 (주식회사 성경신문사)

칼럼



강호경 목사
만나교회

오늘 한국 교회는 교인 간 이념 갈등의 그늘에 갇혀 있다.

최근 모 교회에서는 한 장로의 극우성향 기도에 분노한 청년 신도들이 예배를 떠났고, 담임목사에게까지 “한통속” 비난이 쏟아졌다. 편중된 기도 내용을 삼가라는 담임목사의 말에 결국 장로마저 교회를 떠났다. 교회 공동체가 정치와 이념 때문에 분열되어야 하는가?

보수와 진보는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한 쌍의 날개지만, 오늘날은 ‘우리 vs 너희’ 식 대립으로 수구적 배타성과 진보의 독선으로 변질되었다. 진영 승리가 목

복음 미디어 리터러시로 푸는 양극화

적아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이 절실하다.

미국에서 복음주의의 극우목회자들이 특정 대통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지하며 신앙을 정치화했다. 이들은 전통적 기독교 가치를 내세우며 자본주의, 반노조, 반정부 개입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이에 대해 많은 신학자와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으며, 청년층과 소외된 이웃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Lifeway Research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0대 복음주의자 중 38%가 교회를 떠났고, 이들 상당수는 정치적·이념적 갈등(정치화·우경화)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부 목사라는 이름의 선동가들로 인해 폭력과 인본주의적 사회운동이 신앙으로 포장되었다. 신앙을 이념화하면 교회는 분열과 혐오의 도구로 전락하며, 복음의 초월성과 보편성은 사라진다.

해방 직후 1946년 결성된 서북청년단에는 많은 기독교인이 참여해 ‘공산주의는 절대악’을 외치며 제주·여운 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고문에 가담했다. 복음의 용서·화해 정신을 버린 이념 숭배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기억해야 한다. 신앙은 어떤 정치 이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과 진리로 세워져야 한다.

교회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제자훈련과 소그룹에서 최신 이슈를 함께 읽고, 분석하고 평가하며, 거짓을 분별하고,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AI를 활용한 좋은 신앙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한다면 건강한 신앙 성장을 돕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교육은 단순한 정보 소비가 아니라, 예수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역량을 키워 양극화의 유혹을 벗어나 공동체를 분열이 아닌 치유와 화합으로 이끌 것이다.

성경은 늘 화해의 길을 가르친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고(창 45), 바울과 베드로가 갈라졌던 문제를 복음 중심으로 조율했으며(갈 2),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다(마 5:9). 오늘날의 정치적 분열 앞에서 신앙인은 먼저 용서하고, 경청하고, 화해의 길을 제시해야 할 사명이 있다.

‘누가 옳은가’보다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열을 넘어 치유와 화합을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오늘을 사는 신앙인의 책임이자 소명이다. 복음은 정치와 이념보다 차원이 더 높고 모든 것을 아우른다. 복음이 정치와 이념에 선동되고 휘둘러서는 안 된다.

예성 청소년
모두모두 모여라

예시 | 2026. 8. 4~6(월~수)
장소 |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
주제 | The Power / 신유 (출 15:26)
God's Message is The Power